

報 道 資 料

2004. 12.15일(수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: 해외 플랜트·건설·정보 인프라 참여 확대 방안

- 정부는 12.14(화) 09:00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플랜트·건설·정보인프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·확정하였음
 - 동 방안은 유가상승등에 따른 산유국의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발주가 증가하는 최근 수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
 - 정상외교에서 이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

【주요 내용】

1. 지역별·사업별 수주 확대전략 추진

-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 수립
 - 중동·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자원확보와 연계하여 석유·가스 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하는 한편, 적극적인 수주외교를 위해 고위급 방문등을 추진할 예정
 - 동남아시아·중국의 경우 신도시 개발, 통신망 구축사업과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추진
 - 서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인도를 거점화하여 발전소, 도로건설 및 통신망등 IT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전략 모색
 -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자원개발과 관련된 플랜트 수요,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되 EDCF와 연계하여 추진
 - 중남미지역의 경우 석유개발,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를 감안하여 진출하되, 최근 가입한 IDB와 연계한 진출전략 모색

2.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강화

☐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(5천억원)

-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수은의 신인도가 제고되어 수은의 조달금리를 낮추는등 수출금융 관련 지원여력이 확대
-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통해 자기자본 확충(자기자본 3.4→3.9조원)

☐ 여신한도 확대

-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여신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상업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설정
 - 거액·장기여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금융의 특성상 동 여신한도 규제로 자금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
- 여신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*

* 기업한도 : 자기자본의 20%→40%, 계열한도 : 자기자본의 25%→50%

☐ 수출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 강화

-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('05년에는 3.7조원 수준까지 확대)
- * 중소기업 여신지원 현황(조) : 1.3('01)→1.4('02)→2.1('03)→2.9('04.10 현재)
- 해외자재 구입과 관련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한도 (예: 해외건설자재 계약금액의 15%) 예외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

☐ 수은의 프로젝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허용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,

- 수은의 해외현지사무소를 지역별 거점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

3.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의 전략적 활용

- ☐ EDCF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
- ☐ EDCF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
 - 현재 EDCF의 지원규모가 작고 재원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수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출연 확대가 필요
 - '05년에 수립될 『국가재정운용계획』에 확대하여 반영
 - * 2005년 예산에 2004년(800억)에 비해 25% 증액한 1,000억원 반영(잠정)
- ☐ EDCF 지원금리(현행 1~5%) 인하와 지원절차 단순화등 추진

4.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지원강화

- ☐ 자원개발 및 시장개척 관련 보험지원 강화
 - 자원개발과 관련 보험범위를 전쟁등 비상위험에서 자원개발자 파산등 신용위험까지 확대하여 자원개발 분야의 진출을 지원
 - 시장개척보험과 관련 가입기준(사업금액 5천만불 이상)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
- ☐ 제작자금 지원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
 - 플랜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보는 수출前 사전 제작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할 수 있도록 개선
- ☐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 추진
 - 시공사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험료의 최저 20%를 부과하고 있는 최저할증율의 인하를 추진
- ☐ 중장기적으로 수출보험기금 확충을 통해 지급능력을 확대

5. 수은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연계강화 추진

☐ 국내외 수출신용기관간 연계강화를 통해 공동지원체제 마련

- 우선, 수은·수보간 리스크 관련 정보교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금융 관련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
-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주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신용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

* 수은은 15개국과, 수보는 2개국 수출신용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중

☐ IBRD등 국제금융기구 및 투자은행과 연계강화

- 수은등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약체결을 강화하여 국제금융기구등의 개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
- 아울러, 수은등은 투자은행 참여유도를 위해 개발프로그램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

6.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여건등의 개선

☐ 정부투자기관과의 공동참여를 위한 협력 강화

- 해외진출에 있어 대내외 신인도가 높고 기술력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국내업체간 공동진출 추진

예) 정부투자기관이 개발자(developer)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업체 참여

- 아울러,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업체간 공동진출 또는 정보교환등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을 추진

☐ BOT(Build-Own-Transfer)형* 발주 관련 대응체제 마련
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BOT형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관련 업체간 업무제휴를 추진
- 산자부, 건교부, 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부투자기관과 관련 업체간의 제휴 유도

예) 한전(발전소), 토공(신도시 건설), 석유공사(자원개발) 등

* BOT형 사업 : 시공사등이 투자비 회수시까지 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한 후 동 시설물을 발주국(발주사)에 이전하는 형태의 사업

☐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장개척 기능 강화

- 기업의 프로젝트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, 시장개척과 관련된 정부예산 확대를 추진

* '04년 정부예산 : 사업타당성 조사지원 20억, 시장개척 지원 10억

☐ 해외진출 관련 DB구축 등

- 플랜트산업협회, 해외건설협회,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수주동향, 수주정보등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고, 수주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
- 수은·수보·KOTRA와 관련협회가 중심이 되어 수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정보발굴, 해외벤더 등록지원, 수주지원단 파견등의 사업수행
-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등을 수주와 적극적으로 연계

☐ 기타, 우리기업의 수주지원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

- 발주자의 복보증 요구가 진출기업에 대한 부담인 점을 감안하여 복보증 요구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
- FTA등 통상협상시 관련분야의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,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

7. 국내 여유자금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

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

- 국내 여유자금이 해외 플랜트·건설·정보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

☐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추진

- '05년에 5천억원 규모의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추진
-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플랜트 제작자금 지원 등 수출금융 관련 장기 원화수요에 대응

☐ 이익참가부채권(Structured Bond) 발행 지원

- 발주국(발주자)과 국내업체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회사가 이익참가부채권의 발행을 추진

- 채권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모가 신용을 보장

* 이익참가부채권 : 일정한 수익률 외에 사업성공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받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

- 이익참가부채권 발행을 통해 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

☐ 해외플랜트등 수출 관련 ABS증권 발행 활성화

-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관련 대출자산 또는 수주기업 수출관련 채권을 대상으로 ABS증권 발행 활성화

- ABS 발행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안정적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

* ABS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융기관이 신용보강

☐ 장기적으로 PEF등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개발등을 추진하여 국내여유자금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

8. 해외 수주지원을 위한 대표단 파견 추진

☐ 수주지원을 위해 관계부처, 수은·수보, 관련협회, 관련업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조사단 구성하여 수주 유망지역에 파견

- 실무조사단은 지역별 중점진출 대상 분야와 사업타당성 조사등의 기능을 수행

☐ 필요시, 관계부처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대표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수주계약 지원을 추진

9. 수주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기업역량 강화 추진

☐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제고가 가장 중요한 관건

- 정부는 애로사항 해소 등 단기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

- 이를 위해, 최근의 수주환경 변화를 감안 프로젝트 단계별로 우리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역량제고 방안을 추진

☐ 프로젝트 개발·수주단계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

- 현지 지역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여 프로젝트 발굴·개발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
-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분석과 관련된 노하우를 얻기 위해 세계 우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,
- 한전 및 석유공사 등에 기획·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관련 기획능력을 제고

☐ 프로젝트 실행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

-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로드맵”을 마련하는 한편, 기 추진중인 “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사업”을 내실 있게 추진
- 전문인력 양성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시공능력 배양과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

【향후 추진계획】

☐ 금일 확정된 대책은

- 각부처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(12월중)하여 추진하고
- 종합적인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후속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

資料 生産課：財政經濟部 經協總括課 TEL：2110-2560

(과장 이성한, 사무관 안창국)

開發協力課 TEL : 2110-2579

(과장 양돈선, 사무관 김재훈)

産業資源部 輸出入課 TEL : 2110-5335

(과장 김순철, 사무관 나성화)

建設交通部 海外建設協力擔當官室 TEL : 2110-8093

(과장 임주빈, 사무관 김현정)

情報通信部 協力企劃課 TEL : 750-1411

(과장 민원기, 사무관 유제명)

産業資源部 貿易流通審議官

建設交通部 建設經濟審議官

情報通信部 情報通信協力局長

財政經濟部 經濟協力局長

公 報 官